

# 서울 도심의 공간 표상에 대한 젠더문화론적 독해 - ‘검경(speculum)’으로 보며 ‘산보하기(flânerie)’ -\*

이수안\*\*

## A Reading on the Spatial Representations of Urban Center in Seoul from Cultural Perspective of Gender : ‘Flânerie’ Seeing with Speculum\*

Suan Lee\*\*

**요약** : 이 논문은 서울의 도시를 근대성과 후기근대성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으로서의 문화텍스트로 상정하고 젠더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독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주체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주요 논제로 삼던 기존의 도시사회학과 인문지리학적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근대성이 관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의 성별적 표상과 공간의 성별 분할을 파악하였다. 이미지성과 가독성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공간적 해석의 분석틀은 성별분업과 영역의 이분법, 여성성/남성성의 이분법적 재현, 그리고 근대성과 후기근대성이 이들과 조응하고 교차하는 방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Benjamin의 ‘산보하기(flânerie)’의 도시문화 해석과 음미의 방식은 수용하되 이를 페미니스트 문화독해 방식으로 전화하여 은유적 방법론으로 차용하기 위하여 Irigaray의 ‘검경(speculum)’으로 들여다보기’를 도입함으로써 도시공간분석의 새로운 해석적 방법론으로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주요어 : 서울 도심, 공간 표상, 도시공간, 산보자, 검경, 페미니즘문화연구

**Abstract** : This paper attempts to focus the ways in which Seoul as an urban space can be read and interpreted from gender perspective, assuming Seoul as a cultural text which represents modernity and post-modernity. Drawing on discussions of urban sociology and human geography which hav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spaces and social subjects, this paper explores the gendered segreg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pace in Seoul which has been constructed through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 framework of spatial interpretation of Seoul, concentrating on imageability and legibility,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gendered division of labour and sphere, dichotomy of representations along with femininity and masculinity, and the ways of interlocking between modernity and post-modernity. In this paper, ‘flânerie’, Benjamin’s method of interpretation of urban culture and the way of seeing with ‘speculum’ of Irigaray are adopted as metaphoric methodologies. It is an attempt to develop a new methodology to analyze and interpret urban space from gender-cultural perspective.

**Key Words** : center in Seoul, spatial representation, urban space, flâneur, speculum, feminist cultural studies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10015).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Ewha Womans University).

suan@ewha.ac.kr

## 1. 들어가며 - 연구목적 및 연구기획

서울을 하나의 문화텍스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리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서울은 오래된 역사도시이면서 근대와 후기근대의 문화적 혼종성을 고스란히 겪어내고 또한 이를 표상적으로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고 이산하는 도시공간이기 때문이다. 공간에 대한 연구의 최근 경향 중에서 문화와 연관되는 방식으로는 물리적인 공간과 사회적 주체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간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화연구가 부상하고 있다. 공간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찾아내고 이 의미에 함축된 주체들의 사회관계의 연결망을 읽어내는 작업은 문화연구 중에서 문화현상으로 체화되는 텍스트와 콘텍스트 사이에서 상징과 의미로 나타나는 권력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를 명명하는 문화정치학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근대적 도시공간이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 파생된 근대적 생활양식으로부터 탄생한다. 따라서 도시공간의 문화사회학적 해석은 근대적 생활양식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시 공간에 출현하는 자본주의적 욕망의 탄생과 분출의 다양한 맥락을 따라가며 읽어가는 작업이며 동시에 이들이 어떻게 표상화되는지 해석해내는 작업이다. 젠더 관점에서 공간과 주체, 공간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주목하다 보면 사회공간의 주요 구성요소인 젠더의 작동방식, 특히 이분법적 젠더 관계의 전형, 이분법적 영역과 공간 구분이 이미지로서 재현되는 방식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일상생활 공간에 재현되는 젠더관계 분석으로 젠더무의식을 읽어낼 수 있고 여성 존재의 비가시성을 지적하고 존재를 드러내어 공간의 성정치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토대 구축이 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이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무용에 의하면 공간의 문화정치에 대한 연구란, 공간과 장소를 둘러싸고 지배력과 저항력이 어떻게 부딪치고 교섭하며, 다양한 의미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하고 갈등하면서 공간에 표출되고, 공간을 새로 생성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맥락적인 연구이다(이무용, 2005, 37). 결국 공간, 주체, 권력의 문제가 서로 녹아든 연구지형이 바로 공간의 문화정치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특히 문화연구에 초점을 두는 이 연구는 근대화가 진행되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도시의 물리적 공간 구성과 더불어 건축적 이미지 등으로 다양하게 드러나는 공간의 표상을 읽어냄으로써 하나로 규정되기 힘든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에 대한 젠더문화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나마 시도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서울 도심의 성별적 표상을 읽어내는 작업에 도시사회학적 접근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점은 역사적으로 도시사회학의 관심이 근대성과 그것의 자본주의적 측면에 집중하면서 공간적 개념과 변수, 그리고 공간적 요인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서울을 분석하는데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을 주목한다.

첫째, 근대 도시공간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방법론에 대한 성찰을 접합하는 차원으로서 특히 도시사회학과 인문지리학적 연구 경향에 어떻게 젠더문화이론의 접목이 가능한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근대성이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도시문화로 발현되며, 근대적 생활양식이 어떻게 근대 도시공간 형성과 맞물려있는지를 해석하고, 근대 도시문화를 문화텍스트로 독해하는데 있어서 '산보하기'와 '검경으로 들여다보기'의 은유적 방법론의 차용을 시도한다.

둘째, 도시의 공간구조적 차원으로, 자본주의화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글로벌 시티로서의 면모에 대한 젠더관점에서의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부터 본격화한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후기산업시대에 이르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의 결과로서의 서울의 공간구조를 젠더문화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근대적 생활양식과 이에 따른 영역의 젠더이분법적 분할을 특징적인 문화현상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셋째, 도시문화와 특히 건축으로 표상되는 공간적 특성을 젠더정체성에 대입하여 분석하는 차원으로서 이 논문의 중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서울같이 오래된 역사를 지닌 도시에서는 도시문화의 형성 자체가 대단히 복잡한 층위를 이루기 마련이다. 따라서 도시

문화와 건축이미지를 성별표상체계에 대입하여 해석하는 작업에는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의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을 고려하면서 읽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서는 특히 도시공간이라는 문화텍스트의 이미지들을 다양한 콘텍스트에 따라 젠더문화이론의 분석틀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 차원에서 시각성이 문화에서 갖는 체계모니적 위치가 강조됨으로써 시선의 권력이 젠더관점에서 도시문화를 보는데 중요한 분석틀임을 확인할 것이다.

이론적 논의로는 Benjamin의 '산보하기'를 통한 도시문화 연구, Irigaray의 '검경'을 기초로 한 여성성 논의를 비롯한 젠더문화이론이 은유적 방법론 구축의 토대로 검토된다. 또한 여성성/남성성 개념정의에 대한, Connell을 비롯한 사회학자와 여성학자들의 논의가 검토된다. 한편 도시문화에 대해서는 Featherstone의 소비문화 연구, Chaney의 라이프스타일 연구, Baldwin의 문화연구 개념들이 시각적 성별 표상을 해석해내는데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분석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이론들이 세부 분석에서 적절히 인용됨으로써 설명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이론적 검토는 단순히 사례분석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울 도심의 공간분석이 일종의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론적 검토와 사례분석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밝힌다.

분석 대상인 서울 도심의 공간은 Benjamin의 도시인상학(die Physiognomik)적 관점을 차용하여 선택되었다. 도시 공간과 그 안의 인간들, 그리고 사물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도시의 흔적은 하나의 문화텍스트를 구성하는데 이 흔적을 찾아가며 읽어내는 것이 도시인상학이다(심혜련, 2008, 107-110).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서울의 도시 공간은 이러한 도시인상학적 기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된 근대 도시의 흔적이 있는 공간이며 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엄정한 객관적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문화텍스트로서 근대성의 흔적이 서울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북의 도심,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종로와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과 그 주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의 외양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근대에서 후기근대로 넘어오는 과정, 특히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외양상의 변모를 젠더적 표상체계의 프리즘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건축, 도시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영위되는 생활양식을 젠더정체성, 특히 여성성과 남성성이 은유적으로 표출되는 재현양식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페미니즘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오랜 역사와 근대성, 후기근대성이 농축되어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을 페미니즘 문화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또한 그동안 발전해온 도시사회학과 인문지리학 연구에 페미니즘 이론을 접목하는 학제적 시도를 함으로써, 도시 공간 연구에 인문학적 깊이를 보태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연구가 기획되었다.

## 2. '검경을 들고 산보하기'의 은유적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 '산보하기'와 '검경으로 보기'를 통한 시각적 성찰

특정 도시가 지니는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해석되며 또한 재생산되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문화분석이 유용하다. 이때 문화분석은 도시를 하나의 문화텍스트로 상정하고 그 텍스트가 지시하는 의미망과 상징을 찾아내는 방법론으로서 분석틀을 구성하게 된다. 즉 도시가 갖는 의미와 상징을 찾아내고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이미지로 구성된다. 도시를 텍스트로 보는 접근은 1930년대 Mumford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Mumford(1938)에 의하면 도시는 통합된 사회적 관계의 상징이며 형태이고 또한 예술작품(Mumford, 1938, 3, 5; Savage and Warde, 1996, 160에서 재인용)이라는 관점을 가지면서 주로 건축형태에 부여된

의미에 관심을 가진 멈포드는, 건축형태를 창작자들의 문화적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았으며 건축이 지어진 그 당시의 상황을 해석하기 보다 그 건축에 부여된 의미를 텍스트, 즉 시각이미지를 포함한 문화 텍스트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기초를 놓았다.

(1) '산보하기'의 의미와 도시문화의 시각화

Benjamin은 *Das Passagen-Werk*에서, 산보자라는 개념을 유포한 보들레르의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 봄으로써 이후의 도시문화 연구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산보자(flâneur)'를 발굴하였다. '산보자(flâneur)'는 도시의 거리를 소요하는 신사로, 19세기 프랑스의 시인이자 작가인 샤를 보들레르의 표현대로 도시의 불거리를 즐기면서 아스팔트 위에서 채집·조사하는, 즉 '산보하기(flânerie)'를 행하는 사람이다(Benjamin, 2005, 128). 보들레르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발 떨어져 쳐다보면서 관음증적인 즐거움을 취하는 이런 사람에 주목했다. "그는 도시의 모습을 관찰 하면서 온종일 도시를 소요하며 지내는 '신사'다. 유행하는 옷이나 장신구, 건물, 가게, 서적, 새로운 것이나 주목을 끄는 것을 구경하며 끝없는 호기심으로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을 엿보는 사람이다. ... 주변적 인물로 자신이 관찰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모습을 보인다. 그는 군중 속의 고독한 인물이다."(Wilson, 1992, 94~95; Baldwin *et al.*, 1996, 301에서 요약 재인용) Benjamin은, 산보자가 군중 속에서 피신처를 찾는데 군중은 배이며 이를 통해 보면 친숙한 도시는 산보자에게 환등상(die Phantasmagorie)으로 변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환등상이 백화점 장식의 영감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백화점은 이러한 산보조차도 매출에 이용한다고 비판하는 Benjamin은, 그럼에도 백화점을 박람회 등과 마찬가지로 산보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장소이면서 근대의 이미지를 주조한 틀이라는 점을 들어(Benjamin, 2005, 127) 도시 근대성의 보고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써 산보자를 '시장의 척후(斥候)같은 사람'이며 동시에 '군중의 탐사자'(Benjamin, 2005, 128)로 정의하고 있다.

근대 도시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채집하는 '산보자'가 지닌 중요성은 이런 인물이 취하는 관찰 태도에 있

다고 하겠다. 이들은 모더니티라는 새로운 상황에 말을 거는 지적인 인물이다. 자유롭게 거니는 것, 특히 도시의 풍경을 응시한다는 의미를 지닌 '산보하기(flânerie)'는 산업화되어가는 유럽에서 생긴 대도시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산보자는 모더니티의 공공장소에서 겪는 경험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도시를 소요하면서 군중 속에서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하는 산보자는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다양한 상황을 바라본다. 그가 취하는 태도의 핵심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관찰만 하지, 이에 대한 처방이나 치유책을 내놓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시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Jenks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는 공간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에게 허가된 특권적인 시선을 떼지 않고 소요한다(Jenks, 1995, 146; Baldwin *et al.*, 1996, 303에서 재인용). Benjamin은 이렇게 채집·조사된 도시의 이미지들을 제시하면서 역사의 문화적 기억을 전달하는 역할(Buck-Morss, 2004, 10-11)을 하고 있다.

한편 Simmel(1903; 1983)에게 있어서 대도시는 구조화된 가시적 공간이나 외부의 움직임과 순간적 인상이 교차하는 만화경같은 세계이기 보다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추상적 기능에 따라서 이해되는 세계지만 그와 동시에 근대 도시문화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시각적인 것이라는 유희주의적 논의를 견지하게 하는 세계이기도 하다. 이 논지는 Benjamin과 Berman(1983)으로 이어지면서 도시를 텍스트로 읽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Baldwin *et al.*, 2008, 342). 또한 Simmel에게 있어서 대도시는 일시적이고 덧없으며 우연적인 인식과 관계의 저장소로, 패션, 스펙터클, 진기함의 장소로, 그리고 개인적 열망, 불확실성, 익명성과 혼란이 등장하는 장소로 간주(Savage and Warde, 1996, 239)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특성들이 Simmel의 도시문화 연구에 있어 근대성의 특징으로 각인되었다.

Simmel이 전근대의 문화와 근대성의 문화를 구분할 것을 강조한 반면, Benjamin은 무의식과 꿈의 과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시환경과 그것들과의 관련성을 묘사했다. 이런 객관적 의미들은 지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개념적으로 포착될 수 없으며 상상적인 꿈의 과정

을 통해서만 포착된다는 것이다(Frisby, 1985, 192; Savage and Warde, 1996, 172에서 재인용). 즉, Benjamin은 도시형태가 관찰자들에 의해 경험되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도시경관이 어떻게 해석되며 그 의미가 어떻게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 각인되는가 하는 것이다. 도시에의 개인적 경험에 관한 Benjamin의 개념화는 어느 한 입장에 쏠리지 않고 경험과 문화적 상징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이로써 Benjamin은 도시를 사람들의 기억과 과거의 창고이며 문화적 전통과 가치들의 저장소로 보았다. 그러므로 Benjamin에게 있어서 도시 텍스트를 읽는 것은 도시 경관을 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시에 대한 인식 속에 담겨있는 환상, 희망의 과정(wish-process), 꿈들을 탐구하는 일(Savage and Warde, 1996, 171)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지네이션이 사회적 실천임을 주장한 Appadurai(1996)를 빌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문화적 컨텍스트를 이미지와 연결시킨 Soja(2000, 208-209)와 맥을 같이 한다.

Benjamin이 보기에 사람들의 기억은 건축형태의 경험 속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설명들을 훌러 버리고 새로운 조합으로 신선한 이미지와 조각들을 맞추어 숨겨지고 모호한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알레고리들은 모호하게 숨어있는 객관적인 의미들을 포착하는 데 통찰력을 부여한다(Savage and Warde, 1996, 172). Benjamin의 '산보하기'가 본 논문의 은유적 방법론으로서, 특히 공간 표상 읽기에 적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견된다. 즉 Benjamin의 문화적 의미읽기가, 근대 도시 형성의 물질적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파악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그러한 조건들이 문화텍스트로 상징화되어 나타나는 표상을 포착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Benjamin의 '산보하기'가 갖는 물성적 측면에 대한 비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산보자'의 물성적(gender-blind) 측면에 대한 비판적 논의  
도시를 문화텍스트로 상정했을 때 텍스트분석의 방

법론으로서 Benjamin의 '산보하기(flânerie)'를 선택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뛰어난 통찰력 때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젠더 관점의 결여가 제기되어 왔던 점을 모두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산보자가 기본적으로 남성으로 상정되어왔다는 점이다. 즉 근대도시를 소요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신사(dandy)'가 산보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당시의 도시 대로에 활보하는 것이 허용된 제한적 여성들, 즉 성매매여성이나 정숙하지 못한 여성들을 관음적으로 쳐다보는 시선의 주체로서의 남성이었으며 동시에 여성은 다만 대상이었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다(Berger, 1996).

Benjamin의 '산보하기'가 원래적 의미에서 물성적 행위라는 비판은 그동안 여러 지리학자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여성 산보자의 역할이 없다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참여가 제한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Wolff의 주장(Wolff, 1985; Baldwin *et al.*, 2004, 303에서 재인용)은 더 나아가 여성 산보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산보의 자유가 얼마나 남성적 자유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따라서 도시 경관을 보는 산보자의 자유가 남성적 응시(male gaze)를 구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이 이러한 견해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산보자가 남성적이라는 커다란 틀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19세기 대도시에서 산보자가 독점적인 남성의 역할이었다는 Wolff를 비롯한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비판에 대해 Wilson은 조금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Wilson은 19세기 영국의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백화점과 다방, 기차역과 간이식당, 여성 전용식당, 여성을 돌봐주는 공공 편의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중하층 여성들도 공공장소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최소한 일부 여성들은 스스로 산보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Wilson, 1992; Baldwin *et al.*, 2004, 304).

Wilson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여성 산보자가 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지 산보자가 남성 중심적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Wilson(1997, 277-284)은, Benjamin의 도시에 대한 의식이

결국은 19세기 파리의 신사들과 '산보자'들에 의해 발전되어온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도시 인식이 어떻게 남성중심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즉 Wilson에 의하면, 파리의 신사인 산보자의 의식은 1930년대에 상 파울로 도시경관에 대해 차세대 산보자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는 레비스트로스로 이어졌고 이는 남성중심적 산보자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Wilson은, 레비스트로스가 상파울로의 도시경관을 과장되고 초현실적인 대비에 기인한 '거칠음(wildness)'으로 인식하면서도 결코 보기 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부와 빈곤의, 그리고 즐기는 것과 비참의 극단들이 도시에 대한 이런 인식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이로써 산보자의 도시 인식이 우리의 가치를 전도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Wilson은 이와 같은 궤변적 도시 의식이 근본적인 남성 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성적인 거부함(sexual unease)과 가족적 제약을 받지 않는 바깥에서 추구하는 섹슈얼리티가 그 의식의 주요 선취점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근대 도시에서 여성은 요부, 창녀, 타락한 여성 등으로, 또는 위협에 처한 정숙한 여성으로, 나아가 유혹과 고난을 이겨낸 영웅적 여성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Wilson의 지적대로 Benjamin같은 작가들은 도시에서의 그들 자신만의 낯설음, 갈망, 그리고 욕망에 집중했었지만 많은 작가들은 여성의 실재를 명확하게 질서의 문제로 위치지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Wilson의 논의는 Benjamin의 산보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보하기'를 전복적으로 전유하기 위해 '검경으로 들여다보기'의 유용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 (3) '검경으로 들여다보기'의 은유

프랑스 페미니스트 정신분석학자인 Irigaray는 박사 논문 *Speculum de l'autre femme*에서 남성 중심적인 서양철학과 정신분석학에서 제기된 주체의 문제를 전복적으로 읽어냄으로써 검경을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중요한 상징으로 부각시켰다. 여기서는 Irigaray의 검경의 의미와 '검경으로 보기'의 방법론을 통해 구축된 여성의 몸을 통한 여성성의 전복적 정의를 살펴보

고 이로써 '검경으로 들여다보기'라는 은유적 방법론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원래 검경은 여성의 자궁을 들여다보는데 쓰이는 의학 도구로, 이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자궁의 안쪽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Irigaray는 여성 육체의 안쪽에 빛을 집중시켜 보게 하는 오목거울과, 남성에게 낯설지 않은 볼록거울을 대비시킴으로써(Irigaray, 1980, 183) 여성과 남성의 성적 기관의 차이를 은유적으로 설명하며 이로써 여성적 주체성과 남성적 주체성 형성의 과정이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녀에게 있어서 검경은 여성의 몸을 들여다보듯이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남성중심의 세계를 꼼꼼히 재해석하는데 사용하는 거울로, 여성성을 기이한 두려움(*das Unheimliche*)으로 규정했던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논의에 대해 반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도구의 은유다. Irigaray(1980, 184)는, 검경이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거울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아주 간단하게 음순과 주름, 자궁벽들을 벌리는 도구인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내부로(*das Innere*) 시선을 들어밀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곳을 사색적 의도를 가지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로써 여성 성기관의 내밀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서의 검경이 여성의 성적 주체를 성찰적으로 보게 하는 이론적 도구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이론으로 육체의 물질성을 강조하며 성별화된 존재로서 여성 주체의 주요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줄기를 제공하는 Irigaray는 결국 성차를 전면에 내세운 '차이의 정치학'을 구사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Irigaray는 검경으로부터 출발한 여성성의 개념정의의 *〈하나가 아닌 성 This sex which is not one〉*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Irigaray가 주장하는 본래적 여성성은 여성 몸의 독특한 다중적 구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성의 쾌락도 다중적이며 중첩된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Irigaray, 1996, 81). 여기서 언급되는 다중적이며 중첩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여성성이 몸의 구조와 연결됨으로써 탈육체화되지 않으면서 구체성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Irigaray가 여성성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여성 문화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이수자, 2004, 103-104). 이로써 Irigaray는 여성의 몸의 특성을 들어 여성성을 중첩성과 다양성으로 정의내리면서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온 여성성을 물질적(corporeal) 차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본질주의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Irigaray의 여성성과 여성주체 형성의 전복적인 힘이 있는 것이며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론 전개에 출발점에 '검경으로 보기'의 은유적 사유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방법론으로서 검경을 언급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시공간의 표상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 또는 Irigaray식의 전복적 독해로 읽어내겠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전복적 읽기란 '산보하기'의 시각적 성찰성은 수용하되 물질적 측면을 제거하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중첩성을 은유적으로 읽어내는 방식을 말한다.

## 2) 여성성/남성성과 소프트시티/하드시티의 표상

Wilson은 산업사회의 도시가 여성에게는 자유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면서 도시의 남성-여성 이분법적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음을 제시한다(Wilson, 1997, 281). Wilson이 제시한 도시의 남성-여성 이분법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도시는 위용을 뽐내는 스케일, 타워들, 조망대, 그리고 무미건조한 산업지역으로 남성적 면모를 보이는 반면, 둘러싸는 포용, 불확정성, 그리고 미로정원같은 탈중심성에서 여성적 면모를 보인다. Wilson의 이분법적 도시 이미지는 본 연구에서 성별적 표상을 구분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Raban은 대도시를 근대적 도시(hard city)의 면모와 포스트모던 도시(soft city)의 면모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규정한다(Raban, 1974, 9-10; Harvey, 1994, 22에서 재인용). Raban은 물질적 재화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산업사회의 지배적인 합리적 계획에 대항하여 기호와 이미지의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진 도시를 상상하면서 이를 소프트시티로 규정하였다. 즉 "지도나 통계수치 속에, 도시사회학이나 인구학, 건축학 연구논문 속에 자리잡은 딱딱한 도시(hard city)보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도시, 즉 환상과 신화, 열망과 악몽이 교차하는 부드러운 도시(soft city)

야말로 더욱 실제적인 것이다"라고 정의함으로써 하드 시티와 소프트시티가 근대성과 포스트모더니티를 대변함을 암시하고 있다.

Felski는 근대성을 남성적 합리성과 동일시하면서 여성성은 결국 근대를 넘어선 문화의 다변화된 감성의 세계에 속한다(Felski, 1998, 99)는 점을 들어 포스트모던한 특성에 분류됨을 지적하고 있다. Felski의 이와 같은 근대성과 젠더정체성에 대한 분류는 그동안 있어 온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대체로 합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의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을 레이번이 제시한 바대로 근대적 도시 = 하드시티(hard city), 포스트모던 도시 = 소프트시티(soft city) 등식에 대입하자면, 근대적 도시는 하드시티로서 남성성이 전면에서 드러나는 도시이며, 포스트모던 도시는 소프트시티로서 여성성이 표현되는 도시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Irigaray나 Cixous 등 프랑스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이 제안한 여성적 글쓰기에서 부드럽게 흐르는 유체의 상징들 - 가령 달빛, 우유 등으로 상징되는 여성성의 표현 -, 그리고 본질주의적 맥락에서 부정적으로 정의한 여성다움의 새로운 해석(Cixous and Clement, 1986)과도 맞닿아 있다.

여성성과 남성성을 소프트시티와 하드시티, 나아가 포스트모던 도시와 근대 도시에 대입시키면서 분석하기 위해서 성별 정체성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젠더란 두 성 사이에, 해부학적 토대를 둔 차이에 문화를 덧씌운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성(sex)은 남녀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에 젠더는 문화적으로 구체적인 사고, 행동, 느낌을 나타낸다. 따라서 여성성과 남성성은 젠더의 용어이며 여성 또는 남성에게 사회에서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느끼는 방식을 지시한다. 성차는 문화적 정의와 상호작용적 관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Connell, 1987). Connell(1987, 183)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을 '지배적인 남성성'과 '강조된 여성성'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했다. 이 개념은 문화적으로 지배적인 젠더코드, 즉 영화나 광고 등이 의존하는 동시에 구성하는 젠더 코드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또한 지배 담론에 제시된 여성성·남성

성과 실제 구체적인 경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경험과 지배적 젠더 코드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동시대 서구 문화에서 여성성, 또는 적어도 강조된 여성성은 남성성보다는 훨씬 더 재현적이며 자기 재현적 문제다(Baldwin *et al.*, 2008, 168), 즉 남성이 자신의 '존재'로 거래하는 데 반해 여성은 자신의 '외모'로 거래한다. 이는 존 버거의 유명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남성은 행동하지만 여성은 (외모를) 보인다(Berger, 1996).

Pilcher와 Whelehan의 정의에 따르면 남성성은 남성으로서의 존재와 연관된 사회적 현실들과 문화적 재현들의 세트(Pilcher and Whelehan, 2004, 82)이다. 그들에 따르면 복수로서의 '남성성들(masculinities)'이라는 개념도, 또한 남성으로서 존재하는 방식과 남성의 문화적 재현들이 사회들 간의, 그리고 남성들의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인식 안에서 사용된다. 본질주의의 관점에서 남성성은 남성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예를 들어 사회의 다양한 제도들과 조직들 안에서의 그들의 위치로부터, 그리고 젠더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용 가능한 담론의 맥락 안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Pilcher and Whelehan, 2004, 83).

공간이 정체성과 여성성 사이에서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이슈에 대한 사례연구를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수행한 Leslie는, 여성성이 크게는 문화적 장의 재현들을 통하여 구성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정체성 구성과 이미지의 유통에 있어서 공간은 기본적인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Leslie, 1997, 300-301) 공간적 의미에서 소비는 가정(home)과 가장 근접하게 동일시되어 왔고 가정 그 자체는 흔히 여성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Leslie, 1997, 305). Leslie는, 역사적으로 가정의 사적 공간을 도시의 여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을 제공해왔는데 포디즘의 대량소비가구의 쇠퇴와 함께 여성들의 시장과 전통적 역할이 점차 분절화되고 경쟁적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녀는 또한 피터 잭슨의 연구를 인용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을 다른 공간적 세팅 속에서 각기 다르게 재현한다는 점을 지지시키면서 정체성에 대한 도시 경관의 균열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 3. 사례분석 - 서울 도심에서 검경을 들고 산보하기

#### 1) 공간 구조와 근대적 생활양식

근대성이 도시공간과 연결될 때 이는 특정한 경험양식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Berman은 서구의 도시생활에 대한 미학적 성찰에 대한 연구에서 '근대성의 경험'을 핵심적 원리로 삼고 있다. Berman은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생생한 경험 - 공간과 시간의 경험, 자아와 타자의 경험, 가능성과 위험의 경험 - 방식을 '근대성'이라고 명명하면서, 근대성의 양면적 경험은 덜 개방적이고 통제가능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전통적 생활방식과 대비되며 또한 도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긴장관계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Berman, 1983, 1). 근대도시를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읽는' 작업은 외양(surface)이나 외관(appearance)을 관찰하는 방법론과 맞닿아있다.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특정한 방식 중에서, 묘사하고 보는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합에 대한 도상학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근대성이 실현되는 지금의 사회는 드보르의 표현대로 스펙터클의 사회로서 생활양식 실천의 차별화를 사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물과 사람, 행위의 외관은 관심의 주요한 측면이 되기 때문이다(Chaney, 2004, 135-148 참조).

#### (1) 근대성과 생활양식에 따른 영역할 이분법적 공간구조

근대적 생활양식이 도시공간에 젠더이분법적 영역의 분리를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공간적 분할은 공적 영역에 있어 전형적인 영역인 사무실이나 공장과 분리된 사적 영역으로서의 거주 공간이다. 이는 자본주의와 근대화 과정과도 밀접하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의 성별이분법적 참여양상이 바뀌고 성별분업의 내용이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소규모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의 분할이 그것이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도 강남과 강북, 도심과 외곽, 그리고 사무실과 주거지역의 분할 등이 생활양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도시문화에 대한 고전적인 시도는 도시사회학의 주류학파인 시카고 학파의 토대가 된 Wirth(1938)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 *Urbanism as a Way of Life*>를 들 수 있다. 위스가 말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이란 개인적 다양성, 친밀한 인격적 교제의 상대적 결여, 대개 익명적이고 피상적, 일시적이게 되는 인간관계의 분절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특징들을 가리킨다(Wirth, 1938, 1; Savage and Warde, 1996, 127에서 재인용). 이러한 도시성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여러 하위문화집단의 다양한 일상적 경험으로 확장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공공공간과 사적인 개인공간의 구분이 갖는 성적 의미를 지적하고 있다(Chaney, 2004, 164). Davidoff and Hall(1983)이 대표적인 학자들인데, 이들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같은 논리에 따라 파악했듯이 공적 노동과 사적 노동을 담당하는 성별이분법에 의거하여 공공영역은 남성의 영역으로, 사적 영역은 여성의 영역으로 파악한다. 즉 근대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공간은 도시의 물리적 운곽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남성지배와 관련된다는 것이다(Davidoff and Hall, 1983, 344; Chaney, 2004, 164에서 재인용).

근대적 생활양식이 반영된 도시 공간 구조를 젠더 관점에서 파악할 때 가장 대표적인 공간적 구조 변화는 아파트 등 집단 주거공간과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 소비문화의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파트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 부상하였다. 우선 중산층이 생겨나는 60년대 말,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70년대 이후에 아파트도 함께 탄생하면서 명실공히 대표적인 근대적 주거공간이 되었다(이진경, 2000; 박철수, 2006).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아파트의 등장은 주거공간에 대한 주도권이 여성에게로 넘어오는 것을 뜻한다. 즉 아파트의 일반화는 생활양식의 근대화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무엇보다도 입식부엌과 더 나아가 '주방' 개념의 도입과 맥락을 같이 한다. 침실, 욕실이라는 각기 특수한 기능을 가진 개인적 공간과 가족의 공동 공간으로서의 거실이 이전의 대표적 주거공간이었던 단독주택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편 아파트가 일반화되기 이전의 가옥구조에서 응접실이나 마당으로 대표되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만나는 접경 공간이 혼재해 있었다면 이제 아파트로 대표되는 거주 공간은 온전히 핵가족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근대적 생활양식의 징표로 공고해졌다. 전통 가옥에서는 사랑방으로, 좀더 근대적 의미에서는 응접실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와 내부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던 공간이자 주로 남성 가장에 의해서 내밀한 공간과는 차단된 방식으로 존재하던 공간은 아파트에서 사라지고 대신 거실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의 공동 공간이 되었다. 가족 외의 사람들과의 접촉은 집밖으로 완전히 밀려나가 카페나 최근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용 서비스 공간으로 따로 마련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서의 젠더화된 공간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Kim, 2007) 이로써 공적/사적 영역의 이분화가 성별분업을 공고화해온 근대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의 공간적 특성과 분화로 재현됨을 알 수 있다.

## (2) 성별분업이 투영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화

근대에 들어서면서 공적 및 사적 영역의 제도화와 함께 공적 영역은 일반적으로 노동의 세계, 조직적 문재인 남성의 관심사로 이해되었다. 반면 사적 영역은 가족의 생활양식과 다른 가족성원들에 봉사하는 가족관계와 여성의 관심사에, 즉 가정에 집중되었다. 최근 들어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몸과 가정이라는 미시 스케일은 젠더관계의 양상 연구에 새로운 자극이 되고 있다(정현주, 2008, 906). 또한 국제성별분업에 따른 장소성(Massey, 1994)에 주목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영역 사이의 구별은 가정과 노동 사이의 차이에 육체적으로 각인되었으며, 이 구별은 직업과 거주 사이의 명확한 분리와 함께 도시주변 거주지의 발전으로 분명해졌다. 한국에서도 산업화가 본격

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성별분리가 뚜렷하였고 이는 일부 여성들이 진출한 사무직에서도 직장내 권한의 위계구조화로 영역적, 공간적 분리로 반영되었다. 미국 내 노동시장의 성별분리와 사무실의 공간적 분리에 대한 Spain(1992)의 연구에서는, 이미 사무직에 여성들의 비율이 높았으므로 오히려 여성들만으로 채워진 대형 사무실이 특이한 연구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대형 사무실에 수십명의 남녀직원이 한꺼번에 사무를 보는 경우와는 대조적인 풍경이다.

80년대 초반 국내 S그룹에서 관찰했던 본 연구자의 체험에 의하면, 여성의 사무직/전문직으로의 진출이 전면적이지 않던 1980년대 대기업의 사무실 배치에서 공간의 분할이 산업주의적 노동통제와 규율시스템을 투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S그룹 본사는 서울의 도심에서도 다양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세종로와 연결된 태평로에 위치해있었기 때문에 외관상 당대로서는 고층에 속하는 28층짜리 직사각형 건물로 근대적 위엄을 보임으로써 성별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건물내부의 성별적 분할의 측면에서 S그룹의 경영권력이 집약적으로 지배하던 그룹 비서실의 사무실내 직원의 공간적 배치는 아주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사무실이 주로 들어있던 대형빌딩들은 그 규모에 있어서 위압적이며 공간의 점유에 있어서도 남성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내부공간의 분할에 있어서도 권력의 순서대로 공간의 크기는 나뉘어진다. 대부분의 대기업 사무실들은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하나의 대형 사무실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입구에 가장 가까운 쪽은 제복을 입은 고졸 여직원들이 앞을 향하여 일렬로, 그 뒤로는 서열에 따라 차례로 대졸 남자직원들이 배열되고 가장 뒷자리에는 그 부서의 책임자가 모두의 뒷통수를 쳐다보면서 언제라도, 무슨 움직임이라도 포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근대적 시선의 권력체계가 노동과정의 규율체계로 공간에 그대로 투영된 예다. 즉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선의 권력자가 가장 뒤에 있고 차례로 앞을 보고 앉아있는 형상은 푸코가 팬옵티콘으로 설명하던 응시의 권력체계의 근대 산업 자본주의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팬옵티콘에서는 감시하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로 이

원화되지만 근대적 사무공간의 구조는 서열에 따라 중첩적으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진다. 즉 가장 뒤와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시하면서 동시에 감시당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응시의 권력구조 가장 말단에 고졸 여직원이 위치함으로써 성별분업이 시선의 권력구조화된 공간에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유교적 사고방식이 남아있던 당시의 남녀간의 권력/위계구조가 자본주의적 노동통제 과정에서 그대로 혼합되어 공간적으로 재현되었던 것이다. 즉 여성을 외부와 직접 대면하는 사무실의 전면에 배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유교적 관념에 배치되면서도 여전히 남녀간의 위계구조를 관철시키는 사고방식의 표현인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민원창구 담당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지위와 권한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 포진됨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공간적 위치 자체가 안과 밖의 경계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의 현대적 직종인 텔레마케터, 대형마트의 계산원 등 공간적으로 최전선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여성이면서 비정규직 고용이 적용됨으로써 직종에 있어서의 수평적 성별분업과 지위의 수직적 성별분업을 공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2) 도시문화와 표상 공간에 투영되는 젠더정체성

Lefebvre가 분류한 공간의 세 요소(triad)인 공간적 실천(*la pratique spatiale*), 공간의 표상(*les représentations de l'espace*), 그리고 표상 공간(*les espaces de représentation*)은 경험된 공간, 인지된 공간, 상상된 공간으로 등치되어 불리기도 한다(Lefebvre, 2000, 48-57). Lefebvre는 이러한 공간이 더 이상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속성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자본주의적 힘의 생산물이 된다는 점을 들어 공간의 사회적 생산을 주시하였다. 근대적 도시공간을 표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을 Lynch는 가독성(*legibility*)과 이미지성(*imageability*)으로 들고 있다. Lynch가 말하는 가독성은 도시의 각 부분이 통합된 형태로 쉽게 인식되고 구성될 수 있다(Lynch, 1960, 2~3; Baldwin, 2005에서 재인용)는 것을 뜻한다. 가독성보다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꼽는 이

미지성은 어떤 관찰자에게 강한 인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도시의 물리적 속성(Lynch, 1960, 9; Baldwin, 2005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 이 의미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통로, 경계, 구역, 결절점, 이정표 등이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다분히 물리적 도시공간의 가시적인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주요 대상이기보다는 일종의 보조적 개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성별화된 표상으로서의 도시공간은 우선 공간의 구획 또는 분할, 공간의 점유 방식, 공간의 성격, 그리고 공간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된다. 사무실과 주거공간의 구획, 쇼핑몰과 카페를 중심으로 한 공간의 소비와 욕망의 발현, 노동과 욕망, 몸을 통한 젠더정체성의 구현 (doing gender),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과 광고에서 이미지화하는 성역할, 관계맺기의 공간에 대한 성별화된 표상, 광장의 소멸 등은 근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의 다양한 교차점의 가시적 결과들이다.

### (1) 하드시티(hard city)와 남성성

Raban이 정의한 바를 인용한 설명을 근거로 할 때 (Harvey, 1994, 22), 근대적 도시는 하드시티로서 남성성이 전면에 드러나는 도시이며 포스트모던 도시는 소프트시티로서 여성성이 표현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통상적인 젠더 정체성을 대입해봄으로써 서울을 하드시티(hard city)와 소프트시티(soft city)의 범주로 구획지어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하드시티로서의 면모는 대체로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는 시점까지 구축된 도시의 부분들, 특히 위용을 자랑하는 건축물과 전통으로부터 근대적 시대정신의 구현이 이루어진 도시구역이 해당된다. 급박한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동원되었던, 이른바 '자본주의 산업화'의 상징물들인 삼일빌딩, 세운상가, 삼일고가도로를 비롯한 고가도로, 고속도로 등은 최대한 빠르게 물류를 운송함으로써 공장가동을 최대한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축되었고 이들은 전형적인 하드시티를 구성하며 이의 표상으로 각인되어 있다. 도시를 건축 텍스트의 산물로 분석하는 것은 설립자나 개발업자들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일 수 있으며 건축형태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모호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오히려 건축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그 건축물이 건립된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세운상가나 삼일고가도로 등을 보면 산업근대화 과정에서 서울의 산업화 촉진의 상징으로 내세우려는 권력층의 의도와 설계자의 의도를 짚어낼 수 있다.

서울의 하드시티로서의 면모는 이른바 남성성으로 일반화되는 힘, 특히 근대 산업화의 상징인 망치를 내려치는 근육의 힘과 등치된다. 즉 Connell이 정의한 바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하드시티의 구체적인 재현물인 건축 구조물로 표상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 제일주의적 산업자본주의를 구현해내고 있다. 하드시티로서의 근대 도시의 표상으로서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인 세운상가는 건축물의 외양 뿐 아니라 장소성의 측면에서부터 건축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폭력적인 측면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남성성의 표상으로서 해독할 수 있는 요소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 즉 건립 전, 건립 과정 그리고 최근 도심재개발계획에 의해 일부가 1차적으로 녹지로 만들어지는 과정 등 전반적으로 공격성이 관철된 장소의 상징이다. 즉 장소성에 있어서 한국의 근대사가 그대로 용해되어 있는, 서울에서 몇 안되는 장소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운상가가 건립된 장소는 원래 1945년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미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소개(疎開)도로로 만든 폭 50미터, 길이 1,180미터의 공터였다. 1945년 3월 일제가 도시소개대장을 내리고 경성의 열아홉 군데의 소개공지와 소개공지대를 고시하였는데 소개 전에는 초가와 기와지붕으로 장관을 이루던 '목조도시'의 중심이었다. 고시 후 대대적인 철거를 거쳐 소개지가 되었던 것이다.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곳은 전쟁으로 인한 빈민들이 모여들면서 '거대한 바라크 지대'가 형성되었으며 60년대 중반까지 무허가 판자촌과 사창가가 되어 이른바 종삼의 남쪽 부분이 되었다. 1966년 4월 서울시장으로 부임한 김현옥은 수많은 교량과 도로를 건설하고, 한강개발과 여의도 건설, 시민아파트 등을 지음으로써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그는 "수도 서울 한가운데 이런 불결한 곳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신념에 따라

별명대로 '볼도저' 식 재개발을 시작하였다. 또한 당시 30대로 국회의사당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한국의 근현대 건축의 중심인물이 된 건축가 김수근과 의기투합하여 지금의 총칭 세운상가가 건립되었다(권기봉, 2008, 110-120).

Le Corbusier의 건축적 개념을 도입하여 입체복합 도시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김수근은 보행자 몰과 보행자 전용 데크, 학교, 하늘정원 등을 설치하였다. 설계가 1966년에 시작되었는데 다음해 11월에 박정희대통령도 참석하는 준공식이 거행될만큼 급속하게 건설되었다. 이는 당시 정부가 근대화의 상징물로 삼고자했던 건축물에 대한 조급한 성과주의적 열망이 어땀했는가를 짐작케 하는 결과다. 종묘 앞에서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가 넘는 길이로, 8층에서부터 17층에 이르는 높이의 주상복합 콘크리트 구조물은, 중간의 청계천, 을지로 등 가로지르는 거리의 윗부분을 데크로 연결하여 거대한 배와 같은 위용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로서는 최고급에 속하는 아파트와 호텔, 상가가 함께 있고 서울 도심의 어디에서고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로서 70년대 강남이 개발되기 전까지 서울의 근대적 상징물중 하나로 존재했다.

애초의 계획대로라면 세운상가에서 서울 시민들은, Benjamin이 19세기 파리의 아케이드를 산보하면서 도시문화를 읽어내듯 3층의 데크로 연결된 1킬로미터 넘는 상가를 1층으로 내려가거나 하여 건물을 나가고 다시 들어올 필요 없이 소요하며 상점을 구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책과 소요의 가능성은 차단되고 점차 주류를 이루던 전자상권이 용산 전자상가로 이전되면서 각종 포르노 비디오테이프나 잡지 등을 몰래 파는 소위 '빼끼' 아저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로 인하여 세운상가가 건립되기 이전의 '종삼'의 이미지가 다시 재연되었다는 점에서는 장소의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놀랍다고 하겠다(국민일보 2009. 3. 19일 검색). 세운상가는 전쟁의 흔적을 밀어버리고 '세계의 기운'을 끌어모은다는 기치에 따라 지어짐으로써 박정희식의 산업 근대화가 저돌적으로 밀어붙여 탄생시킨 '힘'의 건축물이자 산업주의가 재현해낸 근대적 남성성의 대표적 인 표상이다.

한편 특정한 건물이 외화하는 전문적 그룹의 지위와 욕망을 사회학자 MacDonald(1989)는 런던의 공인회계사 홀을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70년대 산업계를 장악하고 있던 소위 '재벌' 그룹의 사옥들에 적용해볼 수 있다. MacDonald는 회계사들, 영국 변호사협회를 대표하는 법조인들, 영국 로열 의과대학을 대표하는 내과·외과 의사들을 조사했다. 공인회계사 홀이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계사의 지위는 "그들의 욕구에 어울리고 수요가 있는 비싼 건물 부지, 위압적이고 매우 비싼 건물 성격,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건물의 지명도, 건물 구입에 쓰인 자금을 의해 상징적으로 입증된다(MacDonald, 1989, 75; Baldwin *et al.*, 2004, 344에서 재인용)"고 설명한다. 그런 건물을 구입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눈에 띄는 소비를 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권력을 고양시키려는 일종의 전략적인 시도로 해석된다.

서울에서도 1970년대 지어진 대부분의 재벌 그룹들의 사옥이 이러한 설명에 조응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역 건너편에 있던 대우빌딩, 태평로에서 오랜 기간 가장 현대적인 고층 건물로 위용을 떨쳤던 삼성본관 등이 그것이다. 이제 이들 건물들은, 하나는 그룹의 몰락으로 매각되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적 경제권력이 이동하여 지배하는 지역인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처음의 맥락을 잃어버린 건물이 되었다. 한편 관공서 건물 중에서도 가장 권력과 맞닿아 있는 검찰청과 법원 건물, 그리고 국회의사당 건물이 외양 상 갖는 위압적인 이미지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조급한 근대화에의 의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권위, 육체적 단단함과 강함, 이성애와 임금 노동으로 둘러싸인, 문화적으로 지배적인 남성성의 이상(ideal)이라고 지적한 코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공간구조적 표현이라고 해석된다. 젠더 이론의 한 부분으로 남성성에 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발전시켜온 Connell에게 있어서, 젠더는 인간 육체의 재생산적이고 성적인 능력에 기초한 지속적인 해석과 정의의 최종 산물이다(Connell, 1995; 2000). 그러므로 남성성, 그리고 여성성은 육체에 관한, 인간성에 관한, 그리고 한 사회의 문화와 제도에 관한 이들 해석과 정의의 효과로 이해될 수 있다.

Connell의 논거에 의하면 남성성은 현대 서구사회의 '젠더 위계(gender hierarchy)'에 있어서 여성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이수안, 2008, 144-145).

세종로를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 방향으로 바라보면 이 거리의 표상은 확연하게 권력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권력의 공간은 정부종합청사, 외교부와 맞은 편인 미국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등의 서로 견제하면서도 상호간에 힘을 모으는 관계로 형성된다. 세종로 네거리를 지나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 언론기관의 사옥들이 서울 시청, 서울 시의회까지 함께 하는 거리에 고층 건물로서 위용을 보이면서 늘어서 있다. 또한 세종로를 권력과 연상하여 볼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 요소는 바로 이순신 장군상이다. 군사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무신상은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조각상의 크기나 12미터나 되는 높은 좌대로 이 조각상은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조각상을 세울 당시에는 일제가 건축한 중앙청이 아직 건재할 때이므로 역사적으로도 정치적 권력의 표상인 건축물들이 도열한 가장 정점에 이 조각상이 서있었던 셈이다. 최근 들어 교보문고의 외관에 다달이 바뀌 다는 시귀와 그림, 그리고 일민미술관과 금융박물관 등 일련의 갤러리, 그리고 청계광장(일명 소라광장)과 잔디로 깔고 다양한 공연 무대로 등장한, 또한 촛불시위의 근원지가 된 서울 시청 광장 등이 그나마 부드러운 도시(soft city)의 면모를 갖추면서 여성적 표상이 혼합되기 시작하였다.

## (2) 소프트시티(soft city)와 여성성

Harvey에 의하면 포스트모던 도시(soft city)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도시, 즉 환상과 신화, 열망과 악몽이 교차하는 부드러운 도시'로서, Benjamin이 산보자의 시각을 통해 본 19세기 근대 대도시의 환상적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 여기에는 공원, 녹지, 테마파크, 그리고 좀더 확대하면 백화점 등 쇼핑물이 속할 수 있다. Chaney는, 백화점이 상품세계를 찾아 헤매는 익명의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거대도시 중심부의 변화에서 가장 명백한 요소이며 산보자들의 압축

된 근대성의 거리로 기능한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새로운 형태의 생활양식이 소비주의라는 문화적 형태의 폭넓은 서사(narrative), 즉 환상, 과도함, 스펙터클 등의 표제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 중 특히 여성이 비합리적 설득에 특히 취약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소비문화의 여성독점을 도덕적 가부장제로 설명하고 있다(Chaney, 2004, 44).

Chaney의 설명에 의하면, 여성이 소비문화의 주요 고객이라는 가정은 최근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위치는 전통적으로 생산과 소비 사이의 구별에 기초한다. 대형 백화점의 경영방식이나 판매방식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경영전략에 의하여, 남성적 합리성에 의하여 구성되는데 반해 소비자는 여성으로 상정되면서 생산(남)과 소비(여)의 이분법이 통용된다. 소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들의 경우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방문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백화점 내의 산보자로서, 그리고 소비의 최전선에서 시장에 포획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여 Benjamin의 산보자 역할을 연상시킨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대형백화점인 L백화점과 S백화점, 그리고 H백화점은 산업자본주의의 산물인 재벌기업의 방계회사로서 이미 그 존재 자체가 근대적 물신주의의 표상이다.

건축적 측면에서 보면, L백화점 본점의 경우 파사드가 위압적이면서 고급스러운 자재로 이루어져 있다. S백화점 본점의 경우는 근대건축의 하나로서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물자가 귀하고 백화점이 거의 없던 시절에 건립되어 근대의 백화점이 갖는 귀족적 이미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귀족적 이미지는 건물의 넓은 중앙계단에서 우아한 난간과 넓직한 계단 폭 등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 이전의, 쇼핑몰이나 다른 대형 백화점들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갖고 있던 근대적 '백화점'이 갖고 있는 고급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상류층 여성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 여성이 백화점의 산보자임은 1층이 으레 고급 여성용 상품 매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입증된다. 즉 화장품과 핸드백, 귀금속 매장 등을 배치하여 여성들의 눈길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근대 초기 일제시대의 백화점이 상류층의 전유물처럼

럼 기능해온 것과 비교해서 최근의 백화점은 쇼핑물과 비슷한 위상을 차지하며 차별화된 백화점으로는 입구를 따로 만드는 명품관이 있다. 이곳이야말로 선택된 소수자들의 여유로운 산보가 가능한 공간이다. 한편 삼청동이나 인사동 등 북촌의 전통적 동네의 풍광이 남아있는 지역은 아기자기한 상점들로 인하여 소프트 시티의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갤러리들이 포진하여 문화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소요하는 장소로서 그 동네 자체가 산보자들의 새로운 아케이드다. 그와 연관해서 가회동, 재동 등 북촌의 전통적인 지역 뿐 아니라 경복궁 서쪽의 통의동, 창성동 등 새롭게 갤러리와 카페들이 들어서는 지역은 아기자기한 면모들로 여성 산보자들의 선호지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소비문화의 새로운 시대는 무엇보다도 백화점의 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형쇼핑몰로, 인터넷쇼핑몰로, 그리고 다시 북고풍 소상공점으로 이어진다. 이들 상품의 무한한 번영의 장소는 해방을 위한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구매행위는 더 이상 필요물품의 보충이나 새로운 물품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 비인격적 익명의 이상적 전시 속에서, 구매자는 원하는 대로 해낼 자유를 갖게 되었고, 개인적 취향을 추구하고 개인적 여행을 구성하기 위해 무한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되었다. 서울의 소비문화 경관에 대한 연구(심승희·한지은, 2006, 61-79)에서 주로 지역 특성에 따른 취향의 문제가 쇼핑몰이나 백화점 분석에 투영된 것으로 해석하여 포스트모던한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생활양식'의 구매가 가능해졌고 표준화되었다(Rob Shields, 1992; Chaney, 2004, 44에서 재인용)는 점에서 포스트모던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를 통해 더욱 극명해졌으며 최근 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바로 거주와 여가, 그리고 쇼핑을 하나의 건물 안에서, 그것도 가장 쾌적한 상태에서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양식의 구매를 고가로 하게 되며 이때의 생활양식은 표준화를 넘어 차별화된 포스트모던적 생활양식이 된다. 왜냐하면 홈오토매틱, 무인경비 시스템, 자동환기 시스템 등 최첨단의 자동시설과 언제나 취할

수 있는 여가 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적 외양으로는 Wilson이 지적하듯이(Wilson, 1997, 281) 남성적 위용을 자랑하지만 그 내부의 공간은 사적 공간과 헬스클럽 등 커뮤니티 공간인 준 사적(semi-private) 공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근대성과 후기근대성이 혼재된 표상을 보여준다.

전시와 오락의 스펙터클한 장소로서 도심지의 발전에 관해 언급했던 Chaney는 도심지가 도시주변에서 온 방문자를 위한 중심으로서 여성들도 점차 접근이 쉬워지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백화점은 여성고객들에게 의존하며, 점차 여성직원들로 채워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도시주변의 여성적 성격과 소비주의의 여성적 강조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있으며 또한 소비문화 발전에서 표현되는 보충적 상호의존성이 있다(Chaney, 2004, 45)는 것이다.

같은 성별 내에서도 계층적, 인종적 차이가 공간을 분할의 기준으로 작용하거나 공간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백화점은 전형적인 여성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과 '산보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내부와 외부로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서비스 향유자로서의 상류층 내지 중산층 여성들 간의 계층적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1970년대 사회계층이 보다 뚜렷하게 구분되던 시대에는 특정한 지역이나 공간이 바로 그 사람의 계층적 지위를 가리켰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면 공간적 차이는 많이 희석되고 있다.

### (3) 대로와 골목길의 성별 대칭성과 호환성

Simmel의 분석틀을 정교화하면서 거리에서의 만남과 근대성의 문화가 관련되는 방식을 연구한 Berman에 의하면 근대적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삶을 거대한 소용돌이로서 경험하고 연속적인 해체와 갱신, 문젯거리와 고뇌, 모호함과 모순 속에 있는 자신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Berman(1984)에 의하면 모더니스트가 된다는 것은...근대화가 만들어내는 세계를 파악하고 직면하며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자 고투하는 것이다. Berman은 또한 거리와 시위를 근대적 삶의 기본적 상징으로서 보게 되었다(Berman, 1984, 123)고 토로하면서 거리를 근대적 삶에 대한 소

우주로, 공공공간에 대한 전장으로 보고 있다. 그는,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은 예상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거리의 역할을 폭넓은 관심사에 연결시킨다. 우리는 도난당하고, 공격받고 모욕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불안정성은 우리로 하여금 통행인들의 위협성이나 우리에게 지니는 가치를 알기 위해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도시문화에서 시각적인 것의 역할을 강화시키게 된다. 결국 시각적 심상의 극치에 이르게 되며, 패션과 스타일이 중요하게 되는 가운데 성적인 코드가 이러한 형태의 전시(display) 속에서 이용된다(Savage and Warde, 1996, 153).

Berman의 논의는 서울의 거리와 길, 즉 도로의 풍경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공간의 거리 풍경은 서서히 변화한다. 도로의 폭이 클수록 위압적 파사드의 출현 빈도가 높아 남성적인 면모를 보이고 이면도로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경사도도 심해지면서 그 도로 주변의 공간은 여성적 공간이 된다. 즉 전형적인 남녀 이분법적 역할 분담이 도로의 상태, 도로를 둘러싼 노점의 종류, 도로를 따라 들어선 건물들의 파사드의 상태에 반영되면서 이분법적 표상을 보여준다.

삼청동 일대의 새롭게 형성된 상가들은 포스트모던한 취향과 복고 취향을 적절히 소화해냄으로써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근대적 상업자본주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대형 백화점이 하나의 완벽한 스펙터클을 이루고 있다면 삼청동 일대의 골목길마다 들어찬 가게들의 경우 개별성과 중첩성이 눈에 띈다. 즉 가장 큰 길에서부터 이면도로, 엇갈린 골목길까지 자기자기한 상점이나 카페, 공방 등이 들어차있으면서 의미들을 중첩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3차원적으로 레이어가 중첩되면서 Irigaray의 여성 몸의 중첩성, 여성 욕망의 중첩성과 연관해서 해석할 여지를 주고 있다. 대형 백화점의 파사드와 삼청동, 인사동, 홍대앞 등의 가게들이 구성하는 외피를 비교해볼 때 이들은 접근가능성과 관계맺기의 특성 등과 연관해서 성별화된 표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직 재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서울 도심의 단독주택가를 보면 골목의 조그만 공지에 화초심기를 한다든가 평상 등을 놓고 이웃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임석재, 2006 참조).

또한 동네 안쪽의 좁은 골목길은 점차 안쪽으로, 또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여러 갈래의 실길로 이어지는데 마치 '실핏줄이 몸속 구석구석 뻗어있는 것'(임석재, 2006, 33)과 비슷하다. 특히 서울의 좁은 골목길은 대부분 산동성이에 위치한 서민 단독주택들, 오랜 기간 자연적으로 형성된 재래식 가옥들을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의 편이에 의해 구불 구불 이어지고 또 많은 경우 단면의 경사로 인해 계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동네 안의 골목길은 자동차가 몇차선 씩 지나다니는 계획도로가 갖는 공격적 남성성과는 달리 부드러운 곡선과 근대적 생활양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여성적 풍경을 보여준다. 또한 대로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산업자본주의적 과정을 표출한다. 예를 들면 기업체의 사무실이나 은행, 대형 상점 등 원자화된 개인이 필요에 의해 접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들이 포진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면도로에만 가도 식당가, 주점, 모텔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 생활의 장소로 변화한다. 이렇게 대로로부터 중소로, 그리고 골목길, 실길로 연결되는 길은 마치 사람의 신체 속 핏줄처럼 대동맥, 대정맥에서부터 실핏줄까지로 의인화될 도시의 연결선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대동맥으로부터 실핏줄로 이어지면서 장소적 특징은 점차 후기근대로부터 근대, 나아가 전근대로까지 역으로 전개된다.

대체로 평지보다는 구릉지에서 이러한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사대문 안의 구릉지 지역, 신교동, 옥인동, 삼선동, 길음동, 북아현동, 사직동, 부암동 등은 점차 산 정상 쪽으로 올라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가게는 규모가 영세해져서 급기야는 아주 기본적인 생필품만 살 수 있는 정도로 소규모의 가게만 남는 반면 근대근대 남아있는 땅에 텃밭을 가꾸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전근대적 생활양식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주로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영역의 분포를 경제활동 영역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점유하는 공간과 장소가 차이를 가지고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길의 폭과

스케일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 참여, 그리고 이들 활동의 가시성, 비가시성이 성별 차이와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대부분 서민주택지들에서는 70년대 이전 산업화 초기의 풍경들이 곧잘 발견되는데 이를테면 동네 공터의 텃밭이나 계단참의 야채화분, 그리고 옥상의 텃밭이나 삼거리의 평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한 '고향'을 연상시키는데 실제로 70년대 초반에 이곳에 정착한 거주민들에게 이곳은 '고향'이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100여개의 재개발구역에서 서민적 생활양식을 영위하던 '원주민'들이 서민주택과 함께 밀려나고 아파트를 건립하면 새로운 거주민 집단이 생겨나면서 일시에 생활양식은 변모한 주거문화에 걸맞은 후기근대적 양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옥수동같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지역은 재개발을 거치면서 서민의 '고향이며 생활터전'으로부터 일시에 부자들의 거주지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 즉 푸근하고 올망졸망하면서 계속 덧댄 부분적 증축으로 인해 장식성이 덧붙여져 용도와 이미지, 그리고 역사가 중첩적으로 더해져 Irigaray가 정의한 여성성을 보여주는 소프트시티는 재개발을 통해 딱딱하고 구획지워진 건물과 도로 등의 외형으로 인하여 남성적 하드시티의 면모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 4. 나가며 - '서울'이라는 문화텍스트로서의 도시 공간

공간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라는 Lefebvre의 이론은 Harvey 등에 의해 새로운 도시 공간의 창출을 논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바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대도시이면서 주목할만한 글로벌 시티 중 하나인 서울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과정을 유지해나가는 공간이다. 도심에 고궁과 그 주변의 전통주거지가 후기근대적 소비양식과 혼합되면서 새로운 도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불과 30여년 만에 신 주거지역 강남의 생활양식은 근대성을 건너 뛰어 강북의 옛날 동네와 재개발 예정지역의 생활양식과는 주거양태에서부터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원들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을 문화텍스트로서 놓고 도시사회학과 인문지리학적 접근이 주목하는 도시 공간 구조와 생활양식, 자본주의적 발전과 소비문화가 공간적으로 투영된 양상 등을 도시의 이미지와 표상공간의 상징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들이 간과하기 쉬운 성별역할구분에 따른 도시 구역의 분할, 공간적 표상의 젠더정체성, 그리고 젠더에 따른 공간적 비가시성을 도시 공간 연구의 새로운 분석틀로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Benjamin의 '산보자' 개념과 Simmel의 도시문화에 대한 시각적, 유미주의적 성찰을 근대 도시 공간 분석의 주요 방법론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Irigaray의 '검경으로 보기' 방식을 은유적으로 원용함으로써 도시 공간 분석에 있어서 페미니스트 관점을 관찰하려 시도해 보았다.

서울은 사실 산보하기에 적절한 도시는 아니다. 공간의 구조상으로 보아도 그렇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시간적 관념으로 보았을 때도, Benjamin이 파리를 산보하면서 도시문화에 대해 성찰하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연구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은유적 방법론으로서 '검경을 들고 산보하기'를 채택한 이유는,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것도 Irigaray식 전복적 독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다시 말하자면 검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을 일종의 문화텍스트로서 좀더 섬세하게, 그리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 음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독해방식은 그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근대적 공간의 기억과 삶의 흔적들을 포착해내는데 유효했다. 특히 근대성과 후기근대성이 혼재해있고 여성성과 남성성이, 소프트시티와 하드시티의 특성이 서로 교차하는 면모들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지역과 공간, 이를테면 삼청동이나 청계천, 재개발지역 등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로써 Lefebvre가 제시한 바, 공간의 사회적 구성은 장소의 가치가 차별화되는 담론과정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적인 장소경험의 변화 역시 포함하는 것



이라는 명제가 증명되고 있다. Lefebvre는 공간의 사회적 생산을 탐구함으로써 구조와 행위, 담론과 실천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려 하였으며, Harvey는 그로부터 ‘생성된 공간(created space)’이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생성된 공간이 지리적 조직의 총체적 원리로서 실제 공간(effective space)을 대체한다는 점을 들어 장소의 상징적 차별성을 강조한다(Harvey, 1988, 309). 따라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징과 기호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Harvey와 마찬가지로 생성된 공간의 지배를 현대 사회의 독특한 요소로 본 Giddens(1991)는 공간의 배열마저도 고정된 것, 불변적인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존재론적 안정성(ontological security)’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는데 이러한 존재론적(불)안정성의 문제가 바로 서울에서 일상처럼 발생하는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이 겪는 문제이다. Schields(1991)가 경관에서의 개입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들을 통해 진행되는 공간적인 것(the spatial)의 사회적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시킨 ‘사회적 공간화(social spatialization)’를 통해 서울을 살만한 도시로서 의미 있게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시문화연구와 도시공간 연구에 있어서 Benjamin의 ‘산보하기’와 Irigaray의 ‘검경으로 들여다보기’를 새로운 은유적 방법론으로 융합해보려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의 문화정치학에 젠더문화이론적 관점이 더해질 때 인간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는데 깊이를 더하고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이 연구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시도한 방법론을 은유로서뿐 아니라 서울의 문화적 표상을 더욱 섬세하게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 사사

이 논문은 2008년도 11월 여성지리학회 월례발표회 중 <페미니즘과 시·공간: 지리학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특별주제 세션에서 발표한 글을 논평을 거쳐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도시 공간에 대한 학문적 흥미를 발견하게 해주신 여성지리 학자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논문을 꼼꼼하게 읽고 세심하게 지적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주

- 1) “하늘과 바람과 별과 옥탑방 - 옥수 13재개발구역 72시간” 2009년 5월 16일 KBS1TV 방영. 이 다큐멘터리에서 철거되기 직전의 옥수동을 촬영하고 다니는, 옥수동 거주 서양인 2명은 “이렇게 인간적인 동네를 왜 헐고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곳에서는 비오는 날 빨래를 걸어서 개켜주는 ‘한국’을 느낄 수 있지만 아파트는 세계 어디 서든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개인적 공간일 뿐이라며 재개발에 대해 ‘아쉬워’ 했다.

### 참고문헌

구동희·박영민(역),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서울(Harvey, Davi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 of cultural change*, Blackwell Publishers, Oxford).

권기봉, 2008,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 (주)알마, 서울.

김덕현·김현주·심승희(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서울(Relph, Edward,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td. Publishing, London).

김영찬·심진경(역), 1998,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서울(Felski, Rita, 1995, *The Gender of Moder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김왕배·박세훈(역), 1996,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서울(Savage, Mike & Warde, Alan, 1993, *Urban Sociology, Capitalism and Modernity*, MacMillan, London).

김정로(역), 2004, 라이프스타일, 일신사, 서울(Chaney, David, 1996, *Lifestyles*, Routledge, London).

김정아(역), 2004,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서울(Buck-Morss, Susan, 1991, *Dialectics*

- of Seeing: Walter Benjamin and the Arcades Project*, MIT Press, Massachusetts).
- 동문선 편집부(역), 1996, 이미지 - 시각과 미디어, 동문선, 서울(Berger, John, 1972, *Ways of Seeing*,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London).
- 박철수, 2006, 아파트의 문화사, 살림출판사, 서울.
- 심승희·한지은, 2006, “압구정동·청담동 지역의 소비문화경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5), 61-79.
- 심혜련, 2008, “도시 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책자,” *시대와 철학*, 19(3), 103-135.
- 이무용, 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서울.
- 이수안, 2008, “재현으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젠더문화론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16(2), 136-236.
- 이수자, 2004, 후기 근대의 페미니즘 담론, 도서출판 여이연, 서울.
- 이진경, 2000,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서울.
- 임석재, 2006, 서울, 골목길 풍경, 북하우스, 서울.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6), 894-913.
- 조애리·강문순·김진옥·박종성·유정화·윤교찬·최인환·한애경(역), 2008,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서울(Baldwin, E., Longhurst, B., McCracken, S., Ogborn, M. and Smith, G., 2004, *Introducing Cultural Studies*, Pearson Education Ltd., London).
- 조정구, 2009, “[공간+너머]2부 南村, 근대의 엘레지② 있다, 세운상가,”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9.03.19.
- 조형준(역), 2005, 아케이드 프로젝트, 새물결, 서울 (Benjamin, Walter, 1982, *Das Passagen-Werk*, Suhrkamp, Frankfurt am Main).
-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and London.
- Berman, M., 1983,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 Verso, London.
- Cixous, H. and Clement, C. (eds.), 1986, *The Newly Born Woman*, University of Minesota Press, Minneapolis.
- Connell, R.W., 1987, *Gender and Power: the Person and Sexual Politics*, Polity Press, Cambridge.
- Connell, R.W., 1995, *Masculinities*, Polity Press, Cambridge.
- Connell, R.W., 2000, *The Men and the Boys*, Polity Press, Cambridge.
- Davidoff, L. and Hall, C., 1987, *Family Fortunes: Men and Women of the English Middle Class 1780-1850*, Hutchinson, London.
- Debord, G., 1994,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Zone Books, New York.
- Featherstone, M.(ed.), 1990, *Global Culture*, Sage, London.
- Frisby, D., 1985, *Fragments of Modernity: Theories of Modernity in the Work of Simmel, Kracauer and Benjamin*, Polity, Cambridge.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California.
- Harvey, D., 1988, *Social Justice and the City*, Blackwell, Oxford.
- Holmes, M., 2007, *What is Gender? Sociological Approaches*, Sage, London.
- Irigaray, L., 1980, *Spekulum. Spiegel des anderen Geschlechts*,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 Irigaray, L., 1996, This Sex which is not one, in Jackson, Stevi and Scott, Sue(eds.), *Feminism and Sexuality-a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Jenks, C.(ed.), 1995, *Visual Culture*, Routledge, London.
- Kim, Hyun-Mi, 2007, Gender roles, accessibility, and gendered spatialit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5), 808-834.
- Lefebvre, H., 2000(4e édition), *La Production de l'espace*, Anthropos, Paris.
- Leslie, D. A., 1997, Femininity, Post-Fordism and the 'New Traditionalism', in McDowell, L. and Sharp, J. P.(eds.), *Space, Gender, Knowledge*, Arnold, London, 300-318.
-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Cambridge. MA.
- MacDonald, K., 1989, Building respectability, *Sociology*, 23, 55-80.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Polity Press,

- Cambridge.
- Mulvey, L., 1988,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in Penly, Constance(ed.) *Feminism and Film Theory*, Routledge, London.
- Mumford, L., 1938, *The Culture of the City*, Penguin Harmonsworth.
- Pilcher, J. and Whelehan, I., 2004, *50 Key Concepts in Gender Studies*, Sage, London.
- Raban, J., 1974, *Soft City*, The Harvill Press. London.
- Schildes, R., 1991, *Places on the Margin*, Routledge, London.
- Simmel, G., 1903, *Die Großstädte und das Geistesleben*, Jahrbuch der Gehe-Stiftung zu Dresden, Dresden.
- Simmel, G., 1983, "Soziologie des Raumes," in: G. Simmel. *Schriften zur Soziologie*, H. J. Dahme/O. Rammstedt(hg.), Frankfurt a. Main.
- Soja, E., 2000, *Postmetropolis: Cultural Studies of Cities and Regions*, Blackwell, Oxford.
- Spain, D., 1992, *Gendered Space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and London.
- Wilson, E., 1997, Into the Labyrinth, in McDowell, L. and Sharp, J. P.(eds.), *Space, Gender, Knowledge*, Arnold, London, 277-283.
- Wirth, L.,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XLIV(1).
- Wolff, J., 1985, The invisible Flâneuse: women and the literature of modernity, *Theory, Culture and Society*, 2(3), 37-46.
- <http://www.kukinews.com/news2/>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521027027>, 서울신문 2009.5.21. 27면.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옥탑방 - 옥수 13재개발구역 72시간" 2009년 5월 16일 KBS1TV 방영.
- 교신: 이수안,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진관 303호(이메일: suan@ewha.ac.kr, 전화: 02-3277-6757, 팩스: 02-3277-6598)
- Correspondence: Suan Lee,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suan@ewha.ac.kr, phone: +82-2-3277-6757, fax: +82-2-3277-6598)
- 최초투고일 09. 05. 18  
수정일 09. 06. 10  
최종접수일 09. 06. 19